

중국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

중국 대륙 서북쪽에 있는 투르판은 사막 가운데 피어난 오아시스 지역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서 여러 민족들이 다투어 차지하려고 했던 생명의 땅이다.

투르판이란 지명은 위구르어로 “낮은 땅”을 의미한다. 중국 내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최고 기온이 47.5도, 지표 온도는 70도나 된다. 그러나 해가 지면 온도가 급강하하여 1도 이하로 내려간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열악한 자연 환경이다.

중국의 신장 자치구 주요 도시

인 투르판은 오래 전부터 동·서 교역의 통로였다. 2000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지나는 상인들이 물과 휴식을 위해 오래 들리는 큰 도시였던 곳이다.

오늘날 투르판으로 가려면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가차 편으로 우루무치까지 온 후 다시 자동차로 바꾸어 타고 거의 하루종일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다.

투르판에 살고 있는 사람 중 대부분은 위구르족이다. 이들은 터키계의 후손으로 한때 몽골 고원에서 살다가 9세기 중엽 이곳 텐산 산맥

부근으로 이주해 온 유목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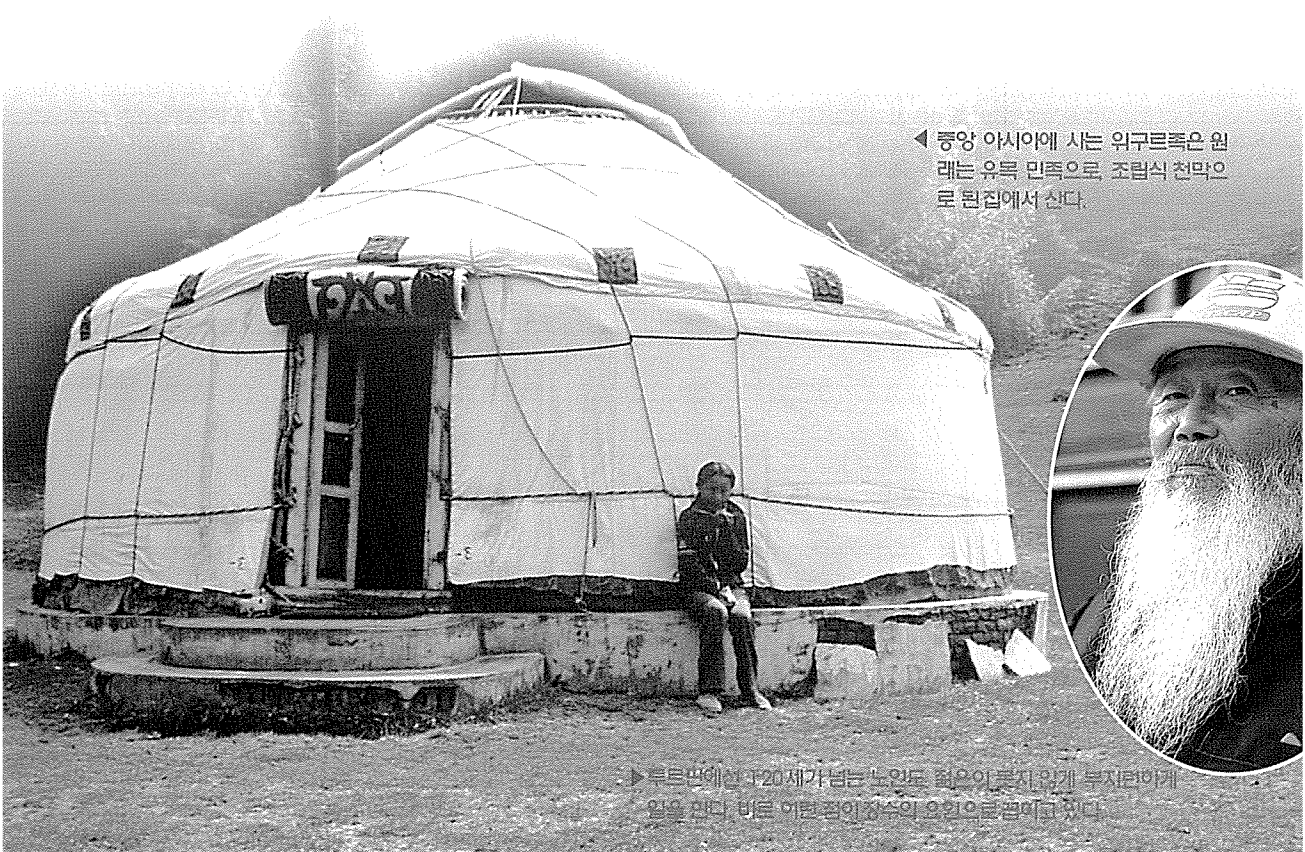
현재 위구르인들은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많으며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촌인 위구르족이 사는 곳은 반 사막 지대이므로 채소 재배가 안 된다.

반면 오아시스 지역과 텐산 산맥 계곡에서 끌어들인 물을 이용한 곳에선 수박, 포도, 메론, 포도 등 신선한 과일이 다량으로 생산된다.

시장에서는 갖가지 과일들과 대추, 살구 같은 말린 과일을 손수레

◀10



▶ 중앙 아시아에 사는 위구르족은 원래는 유목 민족으로, 조림식 천막으로 원집에서 산다.



▶ 투르판에선 20세가 넘는 노인도 젊은이 못지않게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 비록 어떤 점이 장수의 요인으로 꼽히지는 않는다.

